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설교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가 발이 아파서 힘들었던 적 있나요? 신발이 불편하거나 돌이 발에 콕 찔리면 걷는 게 너무 힘들지요. 그럴 때 “아, 언제 도착하지? 힘들다!” 하면서 불평이 나오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길에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계속 걸어가야 하고, 먹을 것과 물이 부족해지자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왔나요?” 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런데 불평은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물려 고통을 겪었지요.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고 하셨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살아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사건 이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불평 대신 찬송을 불러요. “우리를 위해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노래했지요. 광야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하기 쉬워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할 때보다 감사할 때, 원망할 때보다 찬양할 때 기뻐하세요. 시험에 떨어졌을 때, 친구와 다투었을 때, 계획이 잘 안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 대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요!

함께 외쳐볼까요?

“불평 대신 찬송! 원망 대신 감사!”

예배 순서

사도신경 다 같이

찬송 예배하는 시간 속에 다 같이

말씀봉독 민수기 21:1~20절 다 같이

설교 불평에서 찬송으로 설교자

말씀나눔 다 같이

합심기도 다 같이

축복기도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기도문 다 같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찬 양

예배하는 시간 속에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광야 같은 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다가 늦뱀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보며, 저희도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배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게 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나눔

1.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2. 이번 한 주 동안 내가 불평을 멈추고 찬송과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이 있을까요?